

-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085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4일

발 의 자 : 정혜영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하남시민은 더 이상 동서울변전소 고압 송전 증설사업으로 인한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

나. 한국전력공사는 고압 변전소 증설을 주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한 주거지 한가운데 설치하여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3. 이 송 처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한국전력공사사장(경인건설본부장)

4. 결의문 : 붙임

-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문

하남시민은 더 이상 동서울변전소 고압 송전 증설사업으로 인한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감일지구 주민들은 초고압 전력 설비 증설로 인한 전자파와 소음이 우리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지속적인 주민 갈등과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증설 문제가 아니라, 감일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파기된 협약서에는 ‘하남시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주민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종료된 이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는 하남시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단지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일지구 인근에는 다수의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위치하여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큼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옥내화만을 강조하며 증설 계획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남시는 이미 여러 차례 송전탑과 변전소 설치로 인한 전자파, 건강권, 환경피해 등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하남시가 한전과의 협상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러한 갈등을 방치한다면, 우리 하남시의회는 감일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의 당당한 역할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하남시가 감일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력 설비 증설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하남시의회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5일

하 남 시 의 회